

금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86	1,264,166	0.9	8.5	11.2	-0.5	-7.4	-9.4	-14.6	-15.5	-1,259	417	121	2,047	10,884
KOSDAQ	687	130,584	2.3	17.8	12.9	-0.5	-10.4	-12.9	-19.2	-13.9	-559	-234	-168	629	3,014
보험	17,435	21,790	0.6	8.6	7.3	1.9	-2.7	-3.8	-9.3	-17.5	-15	40	21	22	143
증권	1,738	17,545	0.7	8.3	9.5	1.8	-2.3	-2.6	-17.5	-12.5	10	29	19	35	131
삼성생명	92,300	18,460	0.6	8.1	6.9	0.7	-2.4	-5.2	-17.6	-25.9	-18	28	2	5	22
한화생명	4,580	3,978	0.4	7.8	4.8	0.7	-11.6	-11.1	-23.0	-33.7	-4	4	0	1	5
동양생명	5,980	965	0.4	12.0	3.3	2.6	-5.7	-19.2	-20.5	-21.3	0	0	-0	0	1
삼성화재	280,000	13,265	1.1	13.5	8.2	1.1	-1.4	0.4	2.9	4.9	-3	6	5	4	32
DB손해보험	70,200	4,970	0.9	7.7	12.2	4.2	-1.1	6.0	14.5	-1.4	4	0	5	5	30
현대해상	42,850	3,831	0.9	7.7	12.8	7.9	3.0	16.8	14.3	-8.8	7	2	7	6	42
메리츠화재	18,700	2,126	1.0	7.4	15.0	5.1	-3.9	-3.4	-8.1	-20.4	1	-1	1	1	3
한화손해보험	6,070	709	0.5	5.2	10.4	1.7	-11.0	-15.5	-14.5	-25.4	-0	1	-0	0	1
삼성증권	29,450	2,630	0.6	7.4	7.8	2.8	-3.8	-6.8	-18.4	-19.5	4	2	3	3	14
미래에셋대우	7,160	4,714	0.6	8.2	7.7	3.0	-8.4	-10.9	-24.4	-22.1	14	-5	19	16	50
NH투자증권	13,250	3,729	0.8	9.4	8.6	-1.5	-1.1	6.0	-13.7	-4.7	1	-1	4	7	30
한국금융지주	64,700	3,605	0.9	6.3	14.5	-2.3	-7.2	-4.0	-25.9	-6.2	-5	6	-0	6	24
키움증권	83,800	1,852	1.0	7.4	15.7	0.4	2.2	-7.7	-27.8	-4.3	-8	10	-5	5	15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상승하였음. 보험사들의 실적발표가 진행되면서 컨센서스 및 우리의 전망치 대비 부진한 실적을 시현하였지만 주가는 상승하였음. 업종 자체적인 요인 보다는 시장 흐름에 의해 상승하였다고 판단됨.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였지만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되고 북미 회담 연기가 결정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였으며 보험업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됨</p> <p>▶ 생/손보사 3분기 실적 발표: 기 발표된 보험사들의 실적은 우리의 전망치를 대부분 하회하였음. 생명보험사의 경우 투자부분의 부진과 보험이익의 부진이 더해지며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였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인담보 신계약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면서 사업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 손해보험사의 투자부분 역시 주식시장 부진을 반영하며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p>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상승하였음.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10월 증권업 시장 지표는 3분기 평균대비 우수한 흐름을 시현하였고 IB 및 Trading 실적이 향후에도 견조하다면 증권사에 대한 실적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p> <p>▶ 증권사 3분기 실적 발표 예정: 금주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12일 키움증권, 13일 NH투자, 한국금융(예정), 14일 미래대우, 삼성증권 등임. 실적 발표가 주가에 큰 영향은 주기는 어렵지만(이미 지난간 실적) IB 및 Trading 부분의 흐름은 중요한 Check point가 될 것으로 생각됨. 2019년 시장 지표의 큰 폭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IB 및 Trading 부분에서의 역량이 실적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QoQ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누계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누계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KOSPI+KOSDAQ	8.8	-2.5	12.4	9.0	8.8	10.8	9.6	9.1	-4.5	11.8	13.8	13.9	9.4	9.5	0.7	
KOSPI	5.6	3.8	7.5	5.5	5.2	6.1	6.1	5.8	-5.1	6.0	7.0	8.1	5.6	6.0	8.3	
KOSDAQ	3.3	-11.7	4.9	3.4	3.5	4.7	3.5	3.3	-3.5	5.8	6.8	5.8	3.8	3.4	-10.4	
신용잔고	조원	YTD, %														
KOSPI+KOSDAQ	9.2	-6.2	11.8	10.8	11.3	11.8	9.3	9.2	-1.0	9.8	11.3	11.8	11.8	9.2	-21.4	
KOSPI	4.8	6.8	6.0	5.5	5.7	5.9	4.8	4.8	-0.9	4.5	5.4	6.0	5.9	4.8	-19.0	
KOSDAQ	4.5	-17.0	5.8	5.3	5.6	5.9	4.5	4.5	-1.1	5.4	5.9	5.8	5.9	4.5	-23.8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1년	1.78	-3.8	1.85	1.83	1.73	1.85	1.80	1.78	-2.1	1.85	1.89	1.85	1.85	1.78	-6.3	
3년	1.95	-16.2	2.12	2.13	1.91	2.00	1.94	1.95	1.1	2.13	2.22	2.12	2.00	1.95	-4.9	
5년	2.06	-27.5	2.35	2.36	2.10	2.18	2.08	2.06	-1.5	2.35	2.43	2.35	2.18	2.06	-11.5	
10년	2.23	-26.7	2.56	2.57	2.31	2.36	2.25	2.23	-2.0	2.47	2.62	2.56	2.36	2.23	-13.0	
약점 MS	%	17년대비, %p														
삼성증권	5.4	-0.5	6.0	6.1	6.0	6.0	5.6	6.1	0.4	6.0	6.2	6.2	6.0	5.7	-0.4	
미래에셋대우	11.7	-0.9	12.3	12.4	12.2	12.3	11.7	12.6	0.7	13.2	13.3	12.8	12.3	12.0	-0.3	
NH투자증권	6.2	0.2	6.4	6.5	6.9	6.5	7.3	6.4	-0.9	6.4	6.3	6.4	6.6	7.2	0.6	
한국금융지주	5.7	-0.1	5.1	5.3	5.4	5.6	5.4	5.6	0.2	5.8	5.7	5.3	5.4	5.4	-0.0	
키움증권	15.0	-1.5	17.9	16.9	17.4	17.4	15.9	16.0	0.1	17.4	17.5	18.2	17.2	15.9	-1.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까지 실적 발표를 통해 손해보험에서는 사업비율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이익 개선이 지연되고 투자부분의 부진 역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임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파름이 삼성 90.4%, 현대 83.8%, DB 92.8% 등 상위사들조차 90%를 넘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든 손보사가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최근 사고심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경비수가 일정부분 타결/부품가격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물론 높아진 손해율로 인하여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좀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우려감이 당장은 클 수 있기 때문임 이를 반영하여 2019년 이익 전망치를 조정하고 있음. 2018년 3~4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2019년 이익 증가율은 직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증권업종은 시장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금주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시장 반등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주가 회복은 어렵겠지만 1) 실적 발표를 통해 IB 및 Trading 수익성 확인, 2) 최근 하락하고 있는 채권 금리도 인하여 채권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 발생, 3) 전주 거래대금이 8.8조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시장 변수 악화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우리는 금주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 이후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중립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며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음 증권업종이 베퍼 마켓에서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주가 조정과 10월 보여준 양호한 시장 지표들 감안할 때 시장대비 언더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됨 따라서 선별적 종목 접근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1월 14일	중국	중국 산업생산 (YoY) (10월)	5.8%	5.7%
11월 14일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10월)	0.1%	0.2%
11월 15일	미국	원유재고	5,783M	
11월 15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11월)	22.2	20.9
11월 15일	미국	수출가격 (MoM) (10월)	-0.2%	0.1%
11월 16일	유럽	소비자물가지수 (YoY) (10월)	2.2%	2.2%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 IFRS17 도입 1년 연기...IASB서 12일 결정할 듯 (뉴스핌)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 우리은행 지주 회장·행장 1년 겸직 유력...7일 지주사 전환 승인 (조선비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 행장의 한시적 겸직 체제로 우선 출발한 뒤 1년이 지나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했음

▶ 코스피·코스닥 '증시 패닉'에 기업공모 철회 증가...IPO 시장 '올머겨자 먹기 위축' 우려 (이코노뉴스)

국내 증시가 22개월 만에 2000선을 맴돌자 신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의 자진 공모 철회가 늘어나고 있음

▶ '보름만에 2000계약' 메리츠생명 댕보험 들끓? "난제투성" (조선비즈)

지난달 15일 출시된 메리츠화재의 댕보험(반려동물보험)이 보름만인 같은달 31일까지 1911건의 판매고를 올렸음

▶ 무디스 "개인사업자 대출, 한국 은행권 리스크 요인" (조선비즈)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국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은행 '물량규제' 시행 2020년으로 늦춘다 (조선비즈)

은행의 물량 대출을 막는 '거액 익스포져' 규제의 도입 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늦춰졌음.

▶ 제로페이에 인수심적씩 퍼줄 은행들 "우리 명파서 장사하나" (조선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하나은행·SKT 협력한 핀코, 내달 체크카드 출시 (조선비즈)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합작해 세운 핀테크 업체 '핀코'가 내달 체크카드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음

▶ 농협·수협·신협 등 이달부터 가계대출 취약차주 지원 (조선비즈)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로 했음

▶ 美중간선거 후 글로벌 경제... "위안화 환율 주목해야" (조선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완화 무드를 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증권가에 부는 핀테크 바람... ICT기업과 협업 '붐' (아시아투데이)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가 증권업 진출을 예고하는 등 금융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존 증권사들도 인터넷 기술 기업들과 결합해 금융플랫폼 등을 구축하며 협업을 강화하는 분위기임

▶ 우리금융지주 5년만에 부활...비은행 M&A 큰 손으로 등장 (조선비즈)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지주사 체제로 탈바꿈하기로 했음

▶ 빚장 열린 부동산산탁, 중소형사 설자리 좁아진다 (조선비즈)

금융당국이 연내 최대 3곳에 부동산산탁업 인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중소형 부동산산탁사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

▶ 9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0.54%...전월대비 소폭 하락 (조선비즈)

9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54%를 기록했다. 8월말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작년 9월말보다는 높아졌음

▶ 미래대우, KP 데뷔...증권사 외화조달 '물꼬' 텃다 (더벨)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한국물(KP·Korean Paper) 발행에 성공했음

▶ 중소형 보험사 자본확충 가속화...DB생명, 1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뉴스웨이)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후순위채권을 올해 4분기 중 발행키로 결정했음

▶ 금리인상 덕 못 보는 보험소비자...공시이율 줄줄이 인하 (해럴드경제)

금리인상기에 유독 보험권의 공시이율만 떨어져 보험 소비자들만 금리인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걸로 파악됐음

▶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낮아지나...KDI 신(新)요율산출 '적용'이 관건 (매일일보)

보험사들이 KDI 연구결과를 위험률 산출에 포함할 경우 2019년 신 실손의료보험료는 낮아지고 표준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은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 ...고개드는 12월 보험료 인상론 (전자신문 ETNEWS)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90.4%, 현대 93.8%, DB 92.8%로 가마감 수치가 보도되었음. 예상보다 높은 손해율에 대한 우려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들이 현재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 인센티브 과당경쟁 자제하라"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인센티브를 줄이라고 압박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 [단독] 미래에셋금융그룹, 베트남 하노이 물류창고 530억에 인수 (머니투데이)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 펀드'가 베트남 하노이 물류창고를 53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음

7. Global Peers

한국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KOSPI	2,086		0.9	8.6	9.7	9.2	-0.5	-3.5	-8.6	-15.8	-15.5
보험	17,435		0.7	8.3	6.5	0.6	1.9	1.9	-3.8	-10.3	-17.5
삼성생명	92,300	16.3	0.5	8.5	6.5	0.7	0.7	-2.6	-4.8	-17.6	-25.9
한화생명	4,580	3.5	0.4	6.9	5.7	0.4	0.7	-8.6	-10.4	-23.8	-33.7
동양생명	5,980	0.9	0.4	10.2	4.7	0.4	2.6	-6.0	-18.8	-21.9	-21.3
삼성화재	280,000	11.7	0.9	12.0	8.5	1.3	1.1	-1.9	0.5	3.9	4.9
DB손해보험	70,200	4.4	1.0	7.9	13.1	1.5	4.2	-1.8	3.8	17.4	-1.4
현대해상	42,850	3.4	1.1	7.9	14.7	1.1	7.9	4.1	16.0	15.8	-8.8
메리츠화재	18,700	1.9	1.2	8.3	14.1	1.3	5.1	-2.9	-2.1	-8.3	-20.4
한화손해보험	6,070	0.6	0.6	4.4	11.3	0.9	1.7	-9.1	-15.1	-13.9	-25.4
증권	1,738		0.6	7.6	8.7	0.9	1.8	5.2	-1.3	-21.7	-12.5
삼성증권	29,450	2.3	0.6	7.0	8.4	1.0	2.8	-2.8	-7.4	-20.1	-19.5
미래에셋대우	7,160	4.2	0.6	8.4	7.2	0.6	3.0	-6.3	-9.9	-24.9	-20.3
NH투자증권	13,250	3.3	0.8	9.4	8.4	0.9	-1.5	4.3	8.6	-15.6	-4.7
한국금융지주	64,700	3.2	0.8	6.0	14.4	1.3	-2.3	-1.4	-1.8	-29.2	-6.2
키움증권	83,800	1.6	1.0	6.8	15.6	2.2	0.4	6.1	-6.7	-30.2	-4.3
일본	Nikkei225	22,250		1.7	15.9	10.5	2.1	0.0	-2.0	-0.2	-2.2
보험	1,086		0.8	11.4	7.0	0.9	1.1	1.1	7.7	2.9	2.5
Dai-ichi Life Holdings	4,439	27.7	2.5	51.7	4.7	2.6	5.7	-6.5	-0.2	15.7	51.1
Japan Post Insurance	2,793	14.7	0.8	18.3	4.6	0.1	2.7	2.1	19.8	7.1	5.4
Tokio Marine Holdings	5,502	34.8	1.0	15.1	7.3	1.1	-0.1	-2.2	6.0	4.8	7.0
증권	396		0.8	13.1	4.6	0.2	0.6	-0.6	3.6	-7.2	-8.9
Nomura Holdings	530	17.0	0.6	7.3	9.0	0.6	0.9	-5.4	3.2	-13.2	-20.4
Daiwa Securities	643	9.6	0.8	9.9	8.6	0.6	-1.7	-7.1	-1.2	-1.8	-9.1
SBI Holdings	3,230	6.7	1.6	14.1	11.9	1.2	0.6	-4.6	11.3	11.1	37.1
중국/홍콩	Hang Seng	25,602		1.2	10.7	12.9	1.1	-3.3	-0.8	-9.7	-17.7
상해A주 지수	2,722		1.2	10.6	12.2	1.1	-2.9	-0.3	-7.0	-17.9	-21.4
보험	137		1.2	11.7	10.5	1.7	-2.8	0.9	-6.8	-16.1	-23.9
China Life	16	80.9	1.2	13.6	9.6	1.1	-2.7	-5.0	-15.0	-27.8	-33.7
Ping An Insurance	77	174.0	2.3	12.4	19.9	1.5	-2.4	3.2	7.2	0.1	-4.9
AIA	63	96.6	2.2	19.5	12.1	2.2	-2.5	-0.9	-9.5	-11.9	-6.0
증권	89		1.1	21.0	5.7	9.4	-4.5	19.3	0.4	-24.9	-29.6
CITIC Securities	14	28.1	1.0	13.5	7.5	1.9	-5.2	10.5	-6.9	-24.6	-11.5
Haitong Securities	8	14.3	0.7	11.8	5.9	1.6	-7.5	14.3	6.7	-24.0	-29.5
Huatai Securities	13	18.6	0.9	13.2	7.0	1.9	-5.4	16.3	5.9	-16.6	-16.5
미국	S&P500	2,781		3.2	17.0	18.8	3.4	2.1	0.5	-1.8	2.0
보험	385		1.4	12.2	11.0	1.3	3.9	3.3	0.7	-0.4	-4.3
AIG	44	38.8	0.7	16.1	4.9	0.5	1.2	-16.4	-16.1	-16.9	-26.5
Metlife	45	44.6	1.0	8.5	10.7	0.7	3.6	-2.1	1.2	-3.6	-10.6
Prudential Financial	96	39.6	0.9	7.9	11.2	0.6	-0.1	-6.8	-1.2	-4.9	-16.6
증권	189		2.0	13.6	13.7	1.3	1.3	1.0	-5.0	-11.1	-7.0
JP Morgan	111	370.1	1.6	12.0	13.6	1.3	2.7	-0.2	-3.8	-2.6	4.1
Goldman Sachs	223	86.1	1.1	8.9	13.0	1.1	-3.1	3.6	-3.0	-8.5	-12.6
Charles Schwab	48	64.3	3.5	19.5	19.4	1.3	2.3	-3.9	-5.9	-19.3	-7.3
유럽	MSCI Europe	124		1.7	13.8	9.9	1.1	0.4	1.9	-4.9	-6.6
보험	75		1.1	10.9	12.6	1.0	1.9	3.8	1.1	-3.8	-1.7
Allianz	192	92.4	1.3	10.8	11.6	0.9	3.8	1.8	3.3	-0.0	0.3
AXA	22	61.3	0.8	8.8	8.8	3.8	0.3	-4.9	2.0	-0.3	-9.8
Prudential plc	1,604	53.9	2.4	10.8	22.8	0.7	-0.7	-2.6	-10.8	-17.0	-15.8
Munich Re	193	32.7	1.0	11.3	9.0	1.0	1.9	1.9	5.9	0.9	6.6
증권	65		1.0	13.7	6.5	0.3	-1.0	-0.7	-9.6	-15.6	-17.4
UBS	14	54.0	1.0	10.4	9.7	0.5	-1.7	-3.8	-10.3	-13.9	-20.8
Credit Suisse	13	33.0	0.8	12.7	5.9	0.3	0.0	-6.2	-14.8	-22.7	-24.2
Deutsche Bank	9	21.0	0.3	25.4	0.8	0.1	-2.5	-6.5	-13.1	-22.8	-43.6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한국	현재	금리 수준 (%)						변동폭 (bp)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국고채	1 Year	1.782	1.812	1.867	1.784	1.897	1.853	-3.0	-8.5	-0.2	-11.5	-7.1
	3 Year	1.953	1.980	2.085	2.055	2.300	2.134	-2.7	-13.2	-10.2	-34.7	-18.1
	5 Year	2.060	2.115	2.282	2.287	2.575	2.347	-5.5	-22.2	-22.7	-51.5	-28.7
	10 Year	2.225	2.280	2.442	2.517	2.800	2.467	-5.5	-21.7	-29.2	-57.5	-24.2
일본	1 Year	-0.160	-0.145	-0.132	-0.109	-0.130	-0.145	-1.5	-2.8	-5.1	-3.0	-1.5
	10 Year	0.123	0.129	0.161	0.115	0.054	0.048	-0.6	-3.8	0.8	6.9	7.5
중국	1 Year	2.674	2.826	2.914	2.739	2.905	3.834	-15.2	-24.0	-6.5	-23.1	-116.0
	10 Year	3.490	3.554	3.628	3.551	3.710	3.902	-6.4	-13.8	-6.1	-22.0	-41.2
미국	1 Year	2.725	2.675	2.617	2.413	2.246	1.732	5.0	10.8	31.3	47.9	99.4
	10 Year	3.182	3.212	3.206	2.926	3.004	2.405	-3.0	-2.4	25.6	17.8	77.7
유럽	1 Year	-0.595	-0.582	-0.557	-0.538	-0.559	-0.611	-1.3	-3.8	-5.7	-3.6	1.6
	10 Year	0.407	0.428	0.549	0.375	0.559	0.427	-2.1	-14.2	3.2	-15.2	-2.0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